68~69옛다리-2 2005.2.12 9:40 AM 페이지68 001 Acrobat™ PDFWriter

제주 명월교와 명월대교

제주명월교

제주도의 60여 개 하천들은 한라산 산록부를발원지로하여방사상으로발달되어있다. 이러한하천들은화산열곡, 용암동굴의붕괴, 유수의침식작용및지하수의방향등에의해형성되는경우가많다.

제주도북제주군한림읍명월마을을관통하는 명월천(옹포천)은 용암류의 암반 위를 흐르는 건천으로 용암의 분출 경계 면에 따라형성되었을가능성이높은것으로추정된다. 명월마을에는 풍부한 용천수를 배경으로전분공장과명월소주공장(현재한라산소주공장)이세워지기도했다.

명월대…묵객들이 시와 풍월 즐기던 곳

명월리 마을 안을 흐르는 명월천에는 만년을 산다는 팽나무가 울창하다. 그리고 명월리 아랫마을에‘ 돌물 ’이 있는데 이곳에도 팽나무가 빽빽하다. 명월천의 팽나무는 사람이 심어서 자란 것이 아니라 마을이 설촌될 당시부터 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오씨와 진씨가 먼저 들어와서 마을의 농지를 개간하고집을지으며수많은나무들을벌채했는데명월천의팽나무는보호하자고해서자르지않았다고한다.

명월리는 300년 전에 설촌되기시작해서 명월진으로 번성하였다. 그런데 마을 가운데를 지나는 명월천이 풍수지리에 의하면 바로살수(殺水)에해당하는국면이었다. 설화에따르면살수가들경우마을에큰화재가잇따라일어나게된다. 이에주민들은명월천의팽나무를보호해서살수를막았다고 한다.

이 팽나무 그늘 밑에는 조그마한 벼랑에 놓인 사각형의 죽대 명월대가 있다. 이곳에서는 선비 및 묵객들이 모여앉아 장기와 바둑을두고시와풍월을즐기던곳이다.

명월대는가로4,900mm, 세로4,970mm, 두께220mm, 높이165mm의현무암을돌려 정사각형의 축대를 만들고, 그 위에 높이 180mm, 두께220mm, 길이1,5041,650mm의 8각형 석판을 놓은 다음 그 위에 높이 180mm 두께220mm 직경3,200mm의원을 그리고그중심에직경61mm의둥근석판을 원과같은높이로설치하여사람이앉기편리하게축조되어있다.

주변의엉기정다리, 계곡의울창한거목, 기암 절벽, 계곡의 물들과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있으며,‘ 명월기정엉기정만회의명월대라 기정기정 엉기정 월대월대 명월대 ’라는촌로의즉흥시도있다.

68~69옛다리-2 2005.2.12 9:40 AM 페이지69 001 Acrobat™ PDFWriter

제주의 하나뿐인 홍예

명월천 위로 조금 올라가면 명월교와 명월대교 등 2개의 홍교가 있다. 명월교는 길이 3.5m, 폭 3.6m, 높이 2.3m이다. 명월대교는길이7.8m, 폭4.7m, 높이4m이다. 이 두 개의 홍교는 팽나무 사이에 놓여져 있어 명월천 양쪽 마을의 중요 교통로 구실을 할 뿐만아니라팽나무와어울리어명월천의운치를 더하고 있다. 축조 시기는 1931년으로 알려지고있다.

명월리는상고에는수류촌이라했는데촌반(村班)으로산세좋고문인학자가배출된다 하여 청풍명월이란 말에서 명월이라 했다. 인종원년(1545년) 명월현에서월계정사라는 우면 최초의 교육 기관이 개설되었고, 1923년 구우공립보통학교(현한림초등학교)가 개교되었으며 1934년 한림리로 이설될 때까지 명월 성내에 있었다. 군사 요새지로서명월은중요한 요충지였는데명월진성을 석성으로개축해서오늘에이르고있으며성내에는수군만호(현제주방어사령관)가주재했다.

이처럼역사와전통에빛나는명월리에는 명월성, 명월대, 제주에 단 하나뿐인 홍예, 팽나무군락지등지방문화재가산재해있고 1999년 10월에는 유엔이 정한 세계 노인의해를맞아 80세이상노인인구비율이 높고 95세 이상 고령 장수 노인이 많아장수마을로선정되기도하였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다리 축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민담이 전해지고 있다.

명월대

산짓물홍예
옌날산짓내예다릴놓첸하되
(옛날산지천에다리를놓자고하였으나)
홍애박을석쉬가엇언
(홍예만들어놓을석공이없어서)
지주 삼읍에 방을 놓안“ 산짓내예 홍애 박는사름은
(제주 삼읍에 방을 놓아서 “ 산지천에 홍예 만드는사람은)
양반이민배실을주곡토인이민호세멘하곡
(양반이면벼슬을주며토인이면호세를면하며)
나진백성이민상급을주키옌 ”하여도
(낮은백성이면상금을주겠다 ”고하여도)
아무도홍앨박으키옌나사는사름이엇었쑤다.
(아무도홍예를만들겠다고나서는사람이없었습니다.)
경한디
(그러하였는데)
이때 한 선석쉬가 나산 “ 내 한번 홍앨 박아 보쿠덴 ”하난
(이때 한 석공이 나서서 “ 내 한번 홍예를 만들어보겠습니다 ”고하니깐)
지주목사가“ 어서게건하여보렌 ”허급을하난
(제주 목사가 “ 그러면 어서 해보라 ”고 허락을 하니까)
장작삼백뭇만아져오랜하연
(땔나무삼백묶음만가져오라고하여서)
홍애 코예 지들낭글 데며 놓고 양옆으로 홍앨 올련
(홍예 입구에 땔나무를 쌓아 양옆으로 홍앨 올려서)
매막끝엔머릿돌을매완지들낭글만딱빠부난 홍애가되난
(맨 마지막엔 머릿돌을 메워서 나무들을 모두 빼어버리니석교가되니까)
시해 걸려 놓탄 버친 홍애가 일사흘에 놓아졌쑤다.
(세 해걸려 놓던홍예가겨우일사흘에놓아졌습니다.)
경하난목사가서석귀가라
(그리하니까목사가서툰석공을보고)
“ 서월서 나시민 정북궁 주춧돌 다듬을컬 절도에서나부난할수가엇다. ”
(“ 서울에서 낳았으면 경복궁 주춧돌 다듬을 것을절도에서낳아버리니까할수가없다. ”)
칭찬하멍상급을주었젱합네다.
(칭찬하면서 상금을 주었다고합니다.)

명월대교

손광섭
광진건설회장 · 청주건설박물관장